

<슈퍼베이비>

러닝타임 10 분

임신이라는 화두를 놓고 젊은 남녀의 대립과 갈등, 실로 현실적인 그들의 모습을 코믹하게 그린다.

## 1.#길거리

상가들과 사람들이 즐비해 있는 거리에 선 두 남녀.

바쁘게 지나다니는 사람들 사이에 그들의 표정은 가뭄을 맞은 듯 황량하기 짝이 없다. 점퍼 사이로 뚫고 들어오는 바람 탓에 점퍼 앞섶을 여민다. 꽤 남루한 행색의 그들은 마주 선 채로 대치 중이다.

동수  
확실해?

지영  
(답답하다는듯)  
그렇다니까.

동수  
진짜 확실 하다는거지?

지영  
너 정말 이럴래?

동수  
(좌절섞인 울상을 지으며)  
어떡하려고

지영  
(기가 차다는 듯이 동수를 노려보며)  
뭐?

동수  
(아니라고 믿고싶다는 표정으로)  
진짜?

그때 동수의 왼쪽 뺨을 날리는 지영.  
 짹-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 전환.

## 2.#지하철 안

상황은 지영이 동수를 만나러 가기 전 지하철 상황.  
주머니에서 뭔가를 자꾸 만지작거린다. 초점이 거의 없는 눈빛으로 앞만 쳐다본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동수에게로 가고있다.  
그러다 시선을 지하철 손잡이에 고정시킨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그녀의 머릿속에 정신없이 흐릿한 파노라마 처럼 스쳐간다.  
행복했던 그들의 일상, 지하철 손잡이의 원 모양을 닮은 콘돔의 형체, 아빠가 된 동수. 기저귀값도 없다며 소리치는 지영. 사랑을 나누는 도중 안에다 싸달라며 동수에게 속삭이던 그녀의 모습을 끝으로 상상종료.

짹그랑- 하는 효과음과 함께 상상이 끝난 현실의 그녀는 더욱더 깊은 절망감에 빠진 표정을 지은 후 고개를 푸욱- 숙인다.

### 3. #길거리

다시 그들의 대치상황.

동수

(왼쪽 뺨을 감싼채 고개는 획 재껴져 있다.)

지영

.....

동수

아씨 왜때려!

지영

너 졸업도 못했잖아

이제 우리 어떡해

(어린애 처럼 서럽게 울음을 터뜨린다.)

동수

(독백처럼 자아분열을 하는 동수)

생각을 해야돼 생각을.

이럴 때 일수록 어른들은 말씀하셨지

급할수록 돌아가라.

뭘 돌아가 돌아가긴.

아이씨 어떡하지?

(똥마려운 강아지 처럼 왔다 갔다 하는 동수 이내 멍칫 하며)

아니 잠깐만.

지영

놀라서 동수를 쳐다보는 지영.

(동수에게 조금이라도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던 지영은 혹시나 동수가 자신이

'안에 싸달라'며 속삭였던 모습을 기억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뜨끔했다.)

동수

왜 우리 마지막에 했을때 너가.....

지영

(당당하게)

지금 잘잘못 따질때야?

동수

(다시 고뇌에 빠진 얼굴로)

난 못해. 난 아빠못해.

지영

그래서 돈은?

동수

돈이라는 말에 대학생 동수는 또 한 번 좌절하며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데

때마침 어떤 사람이 들고가는 빈 고양이 집에 시선이 간다.

지하철의 지영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끔찍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빠르게 지나가는 컷들)행복했던 그들의 일상, 아빠가된 동수. 기저귀값도 없다며 소리치는 지영.

고양이 집과 급기야 '베이비박스' 가 겹쳐 보이는 망상을 하는 동수.

땡! - 엘리베이터 효과음 소리와 함께 함께 상상에서 현실로 돌아온 동수.

뭔가를 결심한 것 같은 지영과 동수의 비장한 얼굴. 그때 만큼은 서로 일심  
동체가 된 듯 하다.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산부인과가 있는 상가 안으로 들어가는 동수와 지  
영의 뒷모습 (페이드 아웃).